예비 · 초기 여성창업자 우수 아이템 발굴

전북광역여성새일센터, 제6회 여성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작 선정

전북여성가족재단 소속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제6회 여성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우수 아이디어 발굴 및 수상작을 선정했다.

전북여성가족재단 소속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재단, 원장 전정희)는 '제6회 여성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우수 아이디어 발굴 및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사)한국여성벤처협회 전북지회 공동 주관한 이 대회는 도내 예비·초기 여성창업자들의 △창업아이템 조기 발굴 △사업화 자금 지원 △멘토링 지원 △지역자원 연계까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여성들의 적극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에 지역 농산물과 생태자원을 활용한 제품 및 플랫폼 개발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총 36팀이 참가, 전문가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작 20팀을 선정했다.

본선 발표 후 최종 9팀을 뽑아 최우수상 200만원(1팀), 우수상 100만원(2팀), 장려상 50만원(6팀)을 사업화 자금으로 지급한다. 더불어 지속적인 창업 컨설팅, 창업프리마켓 등 창업 공간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지역 기업의 민간 창업지원 참여가 확대되면서 (유)올드브릭컴퍼니, 꼬숨식품(주), 티엔제이건설(주), (유)아리울현푸드 등 총 4개 기업이 후원에 참여해 지역 기업들이 여성 창업 저변 확대와 지역 혁신 성장을 위해 힘을 보탰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김해경 씨의 '숲에서 멍'(예비·초기창업 부문) 아이디어는 평가위원들로부터 기술력과 개발능력, 성장가능성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해경 씨는 "경진대회를 통해 전문가 1:1멘토링을 받으며 사업아이템을 재점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고 소감을 전했다

예비창업자 우수상을 후원한 (사)한국여성벤처협회 전북지회 장미정 사무국장은 "경진대회를 통해 여성 창업자들의 다양한 아이템 발굴과 사업화 지원으로 전북 지역 창업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벤처기업협회가 앞으로도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정희 원장은 "지역 여성들의 창업 도전은 단순한 경제 활동 참여를 넘어 지역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된다"며 "앞으로도 창업 역량 강화 교육, 컨설팅, 네트워크 지원 등을 통해 여성 창업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김제시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11월 23일까지 이달의 소장품 전시

김제시(시장 정성주)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은 이달의 소장품 전시로 '다리미, 온기로 다듬은 삶의 주름'을 주제로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전시는 오는 11월 23일까지 진행되며, 인두와 숯다리미, 전기다리미 등 근·현대 다리미가 전시된다.

특히 조선 후기부터 근대까지 사용되었던 주물 숯다리미는 불에 달군 쇳덩이로 옷의 주름을 다려내던 시절의 생활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높은 열을 가진 다리미로 옷을 다리면 살균, 곰팡이 및 해충의 알 제거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지금과 달리 빨래를 자주할 수 없던 시절, 다리미는 옛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옷의 수명을 연장해 주었던 중요한 도구였다.

새 옷보다 '잘 다려진 옷'을 중시하던 시절, 다리미는 외출과 인사를 준비하는 어머니의 손길이자 가족의 체면을 지키는 도구였다. 이번 전시는 다리미를 통해 가정의 역사, 단정함의 미덕 등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소환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제25회 전북독립영화제 초청작 상영

전북대박물관, 장윤철 감독 '바다호랑이' · 최진영 감독 '태어나길 잘했어' 2편

전북대학교박물관이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제25회 전북독립영화제 초청작 2편이 31일 전북대박물관 2층 강당에서 상영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상영회는 30일 개막한 전북독립영화제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모든 상영은 무료다.

이날 1부는 오후 1시부터 정윤철 감독의 영화 '바다호랑이'가 상영된다. 상영 후에는 박영완 전북독립영화협회 이사장이 참여하는 시네토크도 이어진다. 작품에 담긴 희생과 용기, 그리고 독립영화의 사회적 의미를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이어 2부에서는 오후 3시 30분부터 최진영 감독의 '태어나길 잘했어'가 상영된다. 상영 후에는 최진영 감독과 배우 강진아가 함께하는 GV(관객과의 대화)가 마련, 작품 제작 비하인드와 영화가 전하고자 한 메시지를 관객과 직접 나눈다.

또한 박물관 강당 앞에서 '특별초청작 현장 스틸컷 사진전'도 함께 진행돼 영화 제작의 순간과 배우들의 생생한 현장을 사진으로 만나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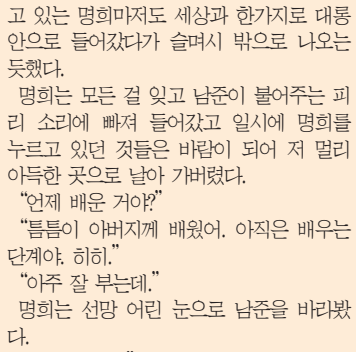
/장은성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깡패와 굿패

2부 '굿패와 무당' (7)

대숲 사이로 몰려든 바람

- 오 상 근 (본보 경제부장) -



명희는 얼굴이 붉어질 대로 붉어져 불꽃이 일 것 같았다. 벌건 화로를 그대로 뒤집어쓴 기분이다. 창피하기보다는 화가 났다.

"가자!"

명희는 남주 손을 잡고 얼른 집으로 들어와버렸다. 남주는 울음보를 수습하지 못하고 한동안 소리 내어 울었고 명희는 그런 남주를 꼭 안아줬다.

"남주야, 집에 고무줄 있지? 나랑 같이 고무줄놀이하자."

남주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남주는 얼른 토방으로 올라가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가더니 고무줄 하나를 들고 나왔다.

"언니, 여기 있어."

명희는 고무줄 한쪽을 기둥에 묶고 다른 쪽은 빨래 간짓대에 묶었다.

"봐봐, 언니가 하는 거 보고 따라 하면 되는 거야."

명희는 다리 사이에 고무줄을 넣고 이리 뛰고 저리 뛰기도 하고 고무줄을 발목에 걸었다가 풀어주면서 노래를 불렀다.

"언니, 나도 할래."

남주도 명희를 따라 고무줄을 다리 사이에 넣고 넘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둘이 그렇게 정신없이 노는 동안 토담 너머에서 인기척이 들렸고, 곧 남준과 남준의 부모가 땀을 흘리며 장구와 북을 들고 들어왔다.

남주는 신동댁을 보자 얼른 뛰어가 다리를 붙잡고 조금 전 골목에서 아이들이 고무줄놀이에 끼워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쏟아내며 칭얼대고 어리광을 부렸다.

명희는 인사를 하고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자 신동댁은 굿을 하고 얻어온 자두와 참외를 다른 보자기에 싸줬다.

"내가 들어다 줄게."

남준이 보자기를 들고 명희를 따라나섰다.

"혼자 가도 되는데……."

말을 하는 명희의 표정이 시무룩했다. 남준은 보자기를 들고 명희와 함께 싸리문을 나섰다. 마을을 벗어나 개천 섶다리에 이르는 동안 명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우리 동네 아이들 때문에 기분이 상했겠구나."

명희는 남준의 말이 채찍이 되었는지 조금씩 흐느끼더니 울먹였다. 얼마간 누적된 서러움이 봇물 터지듯 터진 것이다.

남준은 걸음을 멈췄고 명희를 섶다리에 앉혔다. 개천 물 흘러가는 소리에 명희의 울음이 섞여 들어갔다. 남준은 명희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렸다.

울음소리가 잦아들 무렵 남준은 그때까지 헝겊으로 돌돌 만 것을 들고 있었는데 헝겊을 풀고 그것의 끝을 입에 물었다.

곰방대보다 조금 더 두꺼운 물건이었는데 남준은 그 물건 중간 중간에 뚫린 구멍을 양 손가락으로 막고는 천천히 바람을 넣어 불었다.

대숲 사이로 몰려든 바람이 한 줄기씩 빠져나가는 듯 낮은 소리가 개천 물 위로 흘러가는가 싶더니 바람을 타고 명희의 몸을 감싸고 돌았는데, 그 소리는 어매의 부드러운 손길이 되어 명희의 들썩이던 마음을 감싸 안고 고요한 숲으로 조용히 들어갔다.

들어가는가 싶으면 다시 나와 소나무에 앉으려는 학이 되어 넓은 날개를 펴고 너울너울 춤을 추웠다. 명희는 조용히 그 소리를 듣다가 고개를 돌려 남준을 바라봤다.

붉게 노을 지는 하늘과 푸르게 익어가는 벼, 나지막한 산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소나무와 참나무들의 푸른 잎들 모두가 남준이 입에 물고 있는 작은 대롱으로 슬며시 빨려 들어왔고 다시 바람을 타고 세상 밖으로 나가 풍경으로 펼쳐지고 있었다.

그것은 세상을 빨아들였다가 내뱉고 있었는데 그걸 불고 있는 남준과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명희마저도 세상과 한가지로 대롱 안으로 들어갔다가 슬며시 밖으로 나오는 듯했다.

명희는 모든 걸 잊고 남준이 불어주는 피리 소리에 빠져 들어갔고 일시에 명희를 누르고 있던 것들은 바람이 되어 저 멀리 아득한 곳으로 날아 가버렸다.

"언제 배운 거야?"

"틈틈이 아버지께 배웠어. 아직은 배우는 단계야. 히히."

"아주 잘 부는데."

명희는 선망 어린 눈으로 남준을 바라봤다.

"잘 불긴……."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정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